

# 제 3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원탁회의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 전란에서 안정으로 –」

@제4회 아시아 미래 회의

## 趣 旨

동아시아에서 “역사 화해” 의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강화조약이나 공동성명에 의해 국가 간의 화해가 법적으로 성립되었다고 할지라도, 국민레벨의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진정한 국가 간의 화해는 요원하다. 역사가는 역사 화해에 어떻게 공헌 할 수 있을 것 인가. 1600년을 전후로 약 한 세기는 동아시아가 세 번째로 대규모의 전란에 직면한 시대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시장이 세계로부터 끌어들이고 있던 은(銀)을, 조선에서 제련기술을 배운 일본이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구조 속에서 긴밀한 경제관계가 만들어졌다. 한편, 경제번영은 지역권 내의 여러 민족에게 정치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불러 일으켰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홍타이지에 의한 두 차례의 조선침략 및 만주족에 의한 중국에서의 청나라 건국이 그것이다. 경제에서의 상호의존성 심화와 각국의 패권쟁탈이 동시에 진행되며 만들어진 대규모의 전란, 그리고, 그 이후의 장기안정은 현대 동아시아에 깊은 자성을 불러온다. 다만 이번 회의의 목적은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입장에 따라 다양한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위에 “대화” 에 의해 상호 이해를 심화시켜 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원활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어 ↔ 일본어, 일본어 ↔ 중국어, 중국어 ↔ 일본어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 원탁회의의 강연록은 SGRA 레포트로 작성해 3개국어로 발행하고 SGRA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The 4th ASIA FUTURE CONFERENCE



일 시

2018년 8월 24일(금) ~ 8월 28일(화)

장 소

대한민국 서울 The-K호텔 3F Geomungo B

和解

【기조강연】

조 광 (대한민국 국사 편찬 위원회 위원장) 「17세기 동아시아 역사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의 흐름을 17세기의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연구발표】

일본	아라키 카즈노리	Araki Kazunori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임진전쟁」의 강화교섭
일본	스즈키 카이	Suzuki Kai	동경대학	「호란」 연구의 주의점
일본	마키하라 시게요키	Makihara Shigeyuki	동경대학	일본의 근세화와 토지·상업·군사
한국	최 영창	Choi Youngchang	국립진주박물관	한국에서 바라보는 임진왜란
한국	허 태구	Huh Taekoo	카톨릭대학	禮의 窓으로 다시 바라본 병자호란
한국	최 주희	Choi Joohee	국학진흥원	17세기 전반 唐糧의 운영과 국가의 재정부담
중국	자오 이펑	Zhao Yifeng	동북사범대학	한중관계의 특징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연동
중국	치 메이치	Qi Meiqin	인민대학청사연구소, 「청사연구」 편집장	라마교와 17세기 동아시아 정국
중국	정 지에서	Zheng Jiexi	닝보대학인문학원	기만인가, 타협인가 - 임진왜란기의 외교교섭

프로그램 세부사항 : <http://www.aisf.or.jp/sgra/research/kokushi/2018/10227/>



주 최 : 아쓰미 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연구회(SGRA)

주 최 : 과학연구비 신영역연구 「화해학의 창성」, 와세다대학 동아시아 국제관계 연구소, 서울대학 일본연구소

조 성 : 동경클럽(東京俱樂部)

문의처:  
東京都文京区関口 3-5-8  
渥美国際交流財団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 (SGRA)  
e-mail : sgra.office@aisf.or.jp



<주요 회원>

- ① 거자오 광 (중국 푸단대학)
- ② 조 광 (한국 국사 편찬 위원장 · 고려대학 명예교수)
- ③ 미타니 히로시 (일본 아토미학원여자대학 · 동경대학 명예교수)
- ④ 유 겐 (일본 와세다 대학)